## 여름불교학교에 사용해 보세요

### 풍경소리, 창작찬불동요 42집 발표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온 불교문화단체인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덕신)가 찬불동요 창작곡 42째 음반인 '풍경소리 42집' 〈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음반에는 올해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신곡 '내 마음', '봄의 향기', '빗방울이 톡톡톡톡'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로써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스님의 1986년 부처님오신날 법어에 노래를 붙인 '당신의 생일입니다', 2016 연등축제 노래로 작곡된 '연등공양 올려요'와 불교계에 널리 사랑받는 곡인 '너와 나'를 리메이크하는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MR)을 담아냈다.

이종만 풍경소리 실장은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절 마당에서 사랑과 자비의 연꽃을 키울 수 있는 찬불동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전국 일선 포교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 전통 불교문화 관광콘텐츠 기획 · 연구개발 위한 MOU

### 6월 15일, 불교문화사업단-한국문화재재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은 6월 15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전통 · 불교문화 관광콘텐츠 및 문화상품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전통 · 불교문화 관광콘텐츠에 대해 국내외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불교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과 더불어 현재 개발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연구하고, 사찰음식문화 · 템플스테이 · 불교문화 홍보 등의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화사업단장 성효 스님은 "전통 · 불교문화 관광콘텐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세계화를 통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틀을 다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도식 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문화사업단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콘텐츠로 문화상품을 기획 · 연구하고, 지속적 정보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 아들은 왜 '고향의 흙'을 전했을까

### 다큐 '브링 홈:아버지의 땅' 개봉 도움 절실

한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전 고향을 잃고 떠돌다가 이역만리 타향인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고향을 돌아갈 수는 없었고 결국 미국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아버지의 소원이 먼저 떠올랐다. 그래서 결심했다.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주기로.

다큐멘터리 영화 '브링 홈: 아버지의 땅'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티베트 난민 예술가 '텐진 릭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여정을 좇는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릭돌은 엄혹한 현실의 티베트를 깨닫고 고민을 시작한다. 아버지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것은 곧 자신과 같은 모든 티베트 망명자들에게 조국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릭돌이 선택한 것은 티베트 고향의 '흙'을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가져오는 퍼포먼스였다. 공수되는 흙은 약 20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릭돌과 일행은 17개월을 기다리고, 2개의 국경과 50개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의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낸 감독 텐징 체탄 토클리도 티베트 난민으로 국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절절히 와 닿는다.

"망명자로서 고국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우리 일상의 일부다. 릭돌이 20톤의 티베트 흙을 인도로 가져오는 계획을 처음 말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수천명의 티베트 망명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화인으로서 이 영화를 통해 다른 티베트인, 나아가 세계공동체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꼈다."

**美 활동 아티스트 텐진 릭돌**
**티베트 흙 20톤 전달 이야기**
**'티베트 독립' 메시지 담아내**

**나레이션에 배우 김민종 참여**
**출연금 전부 티베트 난민 기부**

**8월 말 개봉 앞두고 펀딩 중**
**"韓불자들 관심 · 지원 필요해"**

'브링 홈:아버지의 땅'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소개된바 있지만, 여러 이유로 개봉되지 못했다. 당시 영화를 본 버디필름 측이 한국적으로 제작 · 편집을 감독에게 제안했고, 감독도 티베트 난민 지원을 조건으로 흔쾌히 허락했다.

현재 영화는 오는 8월 말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나레이션으로는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배우 김민종 씨가 맡는다. 김민종 씨는 나레이션에 참여하며, 자신의 출연금을 모두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제작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땅'의 스틸 컷. 영화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티베트 난민 예술가 '텐진 릭돌'이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퍼포먼스 여정을 좇는다.



영화 '브링홈:아버지의 땅' 포스터.

문제는 개봉 시 필요한 금액이다. 원활한 개봉을 위해서 제작사 측은 현재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665)을 진행 중이다. 목표 금액은 300만원이며, 오는 7월 9일까지 펀딩이 이뤄진다.

제작사 버디필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티베트의 관습, 불교, 문화까지 탄압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도 닮았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국불자와 국민들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오은희 서울예대 교수의 '승무' 공연모습. 6월 23일 열리는 명인명무전 '신명'에서 공연된다.

# '고이 접어 나빌레라~' 옛 춤사위에 빠지다

### 동국예술기획 · 용인문화재단, 23일 명인명무전 개최

승무, 태평무, 살풀이 등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과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은 6월 23일 오후 8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해설이 있는 명인명무전 '신명'을 개최한다.

동국예술기획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공연은 이번 회차로만 91회에 달한다. 1990년 11월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첫 무대를 시작으로 26년동안 어떠한 지원없이 공연을 이어왔다.

90여 회의 공연동안 1500여 명의 전통예술인들이 '명인명무전'에서 자신들의 예술혼을 불살랐으며 130여 개의 전통춤과 소리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던졌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중 · 소도시를 비롯해 해외(일본, 중국, 미국)무대 등 70여 곳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또한, 동국예술기획은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연출기획과 일본 오사카 민단 50주년, 광주 MBC창사 30주년, KBC광주방송 창사

**91회 맞아 용인포은아트홀서**
**오은희-승무 · 태평무-이우호 등**
**전통춤 명인들 한자리서 공연**
**전문가 해설도 더해져 '눈길'**

개국 판소리 다섯마당 기획연출, SBS사극 서동요 음악연출등을 기획해왔다. 이 같은 공로로 2014년 3월 제2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리더십 수상과 2015년 9월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1회를 맞는 이번 명인명무전의 큰 주제는 '신명'으로, 가(歌) · 무(舞) · 악(樂)의 특징을 가진다. 출연 라인업도 화려하다. 독실한 불심으로 불교 전통무용인 승무를 공연하는 오은희 서울예대 교수를 비롯해 △대금산조의 이생강(인간문화재) △태평무 이우호(중앙대 객원교수) △소고춤 최영란(목원대 교수) △경기민요 강효주(이화여대 교수) △살풀이춤 김지원(단국대 교수) 등이 출연한다. 또한 총예술감독과 해설은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가 맡는다.

박동국 대표는 "국내외 60여 개 극장에서 공연된 '명인명무전'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데 일조해왔다"면서 "우리 것을 지킨다는 사명과 대중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공연이 헛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멋과 낭만과 감성이 흐르는 공연은 여름 밤 찾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